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와 MCN의 관계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시대와 기술, 문화의 발전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가 등장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MCN 역시 이러한 변화의 산물이다. MCN은 ‘Multi Channel Network’의 줄임말로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를 모아서 지원, 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크리에이터 등과 MCN의 관계는 연예인과 연예기획사(소속사)의 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소속사는 전속계약에 기초해 연예기획사가 소속 가수, 배우 등을 양성해 연예활동이나 창작활동 등을 교육, 기획, 지원 및 관리하는 구조다. 반면 MCN은 위와 같은 역할도 수행하지만 그보다는 크리에이터 등이 스스로 콘텐츠를 창작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그 제작된 콘텐츠를 활용해 수익창출을 하고 크리에이터 등의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 및 관리하는 데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구조다.

MCN과 크리에이터 등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MCN과 크리에이터 등은 전속계약과 유사한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가입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대중문화에 속한 표준전속계약 등을 일부만 수정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의 경우에는 기존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도 다수 포함된다. 크리에이터 등의 경우에는 콘텐츠 창작 등에 있어서 크리에이터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MCN은 소속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홍보하고 제작된 콘텐츠 또는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을 이용해 광고,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유치함으로써 크리에이터의 수익 창출을 지원한다. 또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제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작권 관리, 수익 관리, 정산 업무 등의 부수적인 업무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MCN의 전반적인 역할에 관해 계약 내용으로 규정하게 된다.

자금력과 제작 능력을 갖춘 일부 대형

MCN 회사들의 경우에는 콘텐츠 제작 비용, 장비 및 스튜디오(studio), 소속 연예인 또는 크리에이터 등과의 협업(콜라보), 그 외에 저작권 사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속 크리에이터 등의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크리에이터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MCN이 소재 선정이나 공동으로 방송을 진행할 크리에이터 등의 섭외, 영상편집 등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에 개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MCN들은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새로운 2차적 저작물(신규 콘텐츠)을 제작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편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계약의 내용도 필요한 내용을 반영해 작성된다.

한편,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에 전속계약 분쟁 등의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등과 MCN 간에도 가입계약 해지, 수익 배분,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급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존 전속계약에 적용되던 법리들이 일응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채널의 소유권 등 크리에이터 등과 관련해 고유하게 발생하는 문제들도 결코 적지 않다.

/법무법인 바른

이재명 정부 향한 외침… “철강산업 살려”



기자 수첩

이 승 용
(산업부)

철강산업은 단순한 전통 제조업이 아닌 국가 산업경쟁력과 미래 성장의 토대를 이루는 핵심 산업이다.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굳건한 생산 기반과 경쟁력을 가진 철강산업이 있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 중 하나였던 철강산업이 최근 휘청거리고 있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공세, 글로벌 공급과잉 위협,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EU의 탄소국립을 내세운 무역장벽 등이 있다.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내수 부진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경쟁력 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을 중시하는 규제가

지 강화되면서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은 설비폐쇄와 가동중단을 선언했고, 중소 철강기업들은 줄줄이 가동률 저하와 수익성 악화에 허덕이고 있다. 설상가상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기습 인상하면서 수익성에 더욱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철강업계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지만, 후보시절 공약집에는 철강산업 부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포항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경상북도 그린 철강 산업 육성 등이 전부다. 이는 추상적인 발언에 불과해 철강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철강 산업은 조선 산업에도 영향을 준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S0S를 외친 한국의 조선산업은 수소운반선, 암모니아추

진선을 통해 탈탄소화를 주도하면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철강재다. 철강은 전기차, 재생에너지, 탈탄소 인프라, 통신장비에도 필수불가결한 소재를 공급하는 현재의 주력산업이자 미래 산업이다.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 힘들어질 경우 주변 산업들 역시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새롭게 시작한 이재명 정부가 AI, 반도체 등의 산업에만 관심을 보이지 말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었던 산업 역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철강산업 위기극복이나 보호를 넘어, 경쟁여건 정상화, 비용 경쟁력 향상, 저탄소 투자 지원 등 미래 한국 제조업의 핵심 산업을 위한 지지와 구체적 지원방향을 담아내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한번 주저앉은 산업은 다시 재건하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lsy266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6월 9일 (금 5월 14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부동산에서 좋은 일로 연락이 온다. 48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걸 잊지 말라. 60년생 환상을 현실과 혼동하지 말도록. 72년생 무관심이 오히려 좋은 결과. 84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때가 무르익었다	
 소	37년생 친구가 나를 모함하니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49년생 일취월장의 기호가 왔으니 최선을 다해 노력. 61년생 가까운 사이여도 예의를 지켜라. 73년생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85년생 영커였던 실타래가 잘 풀린다.	
 토끼	38년생 입이 경솔하면 주변이 시끄럽다. 50년생 재물이 많아도 외로움은 어쩔 수 없다. 62년생 모래 위에 쌓은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간다. 74년생 향기 없는 꽃에 취해 지갑이 털린다. 86년생 잃을 게 없으니 두려운 것도 없다.	
 토끼	39년생 열심히 노력하니 운도 저절로 따라온다. 51년생 뒷사람이 조언이 늘 도움을 준다. 63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가지라. 75년생 편견을 버리고 상대를 판단하라. 87년생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서 변명만 보인다.	
 양	40년생 한발 물러서서 보면 갈 길이 보인다. 52년생 부족함이 있어도 떠들지 말라. 64년생 머리가 맑아도 외국어 공부 시작하라. 76년생 집안 유품은 간직하고 버리는 것은 차후에. 88년생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니 마음이 불편	
 뱀	41년생 작은 흠이라도 발목을 잡힐 수 있으니 주의. 53년생 문서 운이 있으니 거래를 해도 좋다. 65년생 우물 속 개구리는 큰 세상을 모른다. 77년생 술로 인해 아예들은 말도 기억을 못 한다. 89년생 오랜 친구의 소식을 듣게 된다.	
 말	42년생 나이 든다는 것이 서글퍼지는 하루. 54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66년생 힘든 일은 배우자의 도움으로 해결. 78년생 바늘도둑이 소도둑이니 주의 할 수밖에. 90년생 신선한 먹을거리를 선물 받는다.	
 양	43년생 자손에게 기쁜 일이 찾아오니 마음이 즐겁다. 55년생 서술없이 행동하다가 이성 문제로 구설 생길 듯. 67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한다. 79년생 무리한 운동으로 허리 통증 유발. 91년생 걱정은 버리고 현실적으로 행동.	
 원숭이	44년생 불만을 내색하면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긴다. 56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니 노력. 68년생 친구의 불행을 방관하려는가. 80년생 이성문제도 갈팡질팡 마음이 어지럽다. 92년생 좋은 일을 하고 나면 항상 흐뭇하다.	
 닭	45년생 의외의 협력자가 나타난다. 57년생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주니 마음을 다스려라. 69년생 상대의 거짓말에 속아줘야 하는 상황이 온다. 81년생 잠시 온 작은 인연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93년생 매사 부드럽게 상대를 포용하라.	
 돼지	46년생 아랫사람이 길을 터주니 한결 수월하다. 58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 70년생 신용 있는 인맥으로 좋은 일을 찾게 된다. 82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면 큰 것을 잃는다. 94년생 뒤늦게 노력한 만큼 성과도 좋게 온다.	
 돼지	47년생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진행해도 무방. 59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오늘은 자중. 71년생 무슨 일이든 형편에 맞춰서. 83년생 고목에 꽃이 피니 좋은 일이 있겠다. 95년생 밝은 한여름이나 내 마음은 동지상처럼 차갑다.	

김상회의四季

신들의 세상



명심보감의한구절을인용하다보니 ‘동약성제’라는 신명이나온다.동약성제(東岳聖帝)는 중국 도교에서 숭배하는 신선으로서 중국의 유명한 다섯 산인 오악(五岳)중 동쪽의 태산(泰山)을 관장하는 신을 뜻한다. 태산은 중국에서 가장 신성한 산으로 여겨지며, 동약성제는 이 산의 수호신으로서 별(星)로, 인간의 선악을 감시하고 복과 화를 주관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해진다. 자,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동약성제가 있다면 서악 북악 남악 등에도 성제라 불리는 신선들이 거하는 것이며 특히나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 산신 신앙이 일반적인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신들은 그 수도 많고 반드시 선신(善神)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로마신화에도 보자면 바람피우고 질투하며 거의 인간의 성정과 다를 바 없는, 어쩌면 인간들의 도덕과 윤리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오욕칠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신들이 대부분이다. 오감과 오욕을 지니고 있되 능력이 인간 이상이며 수명도 상대적으로 엄청 길다는 그 차이다. 그에 비해 동북아권인 우리나라나 중국 신들의 경우, 신들은 고상하고 엄정하여 청정하지 않은 것들을 몹시도 꺼리며 선함과 도의(道義)를 좋아하고 거짓되거나 탐욕을 부리면 복을 빼앗고 재앙을 내린다는 권선징악 적 의미가 강하다.

사람들도 자기보다 더 능력과 권한을 가진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인정에 따라 들어주는 경우가 많고 신들에게 구하면 그 정성에 감응하여 뭔가 일이 잘 풀리게 도와주고 힘을 준다는 믿음이다. 신은 성스럽고 초자연다운 존재로서 인간이 기대하는 초월적 능력을 또 다른 의미로는 에너지의 응결체 힘의 에너지이니 초월적 존재들은 저 높은 하늘에 거한다고 보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8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8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도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도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도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월 50만원 지원 ‘서울 청년수당’ 추가모집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7000명 지원
서울권 참여자, 고립 청년 등 우선선발

서울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서울 청년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서울시는 더 많은 청년의 사회진입을 돕고자 10일 오전 10시부터 12일 16시까지 청년수당 참여자 7000여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 지원금과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수당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거나 단기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청년 뚝방 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단, 의무복무 제대 청년은 최대 3년 이내에서 복무기간만큼 청년정책 참여 기간이 연장돼, 복무기간에 따라 만 37세(1987. 6. 1. 이후 출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은 경

우 ▲서울권 참여자 ▲중위소득 80% 이하 단기 근로 청년 ▲고립·은둔 청년 ▲저소득 청년(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순으로 우선 선발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선정된 참여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받고, 진로 설정과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성장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현직자 장기 멘토링’도 새롭게 도입했다. 성장지원 프로그램이 일회성 상담이나 특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취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글로벌 AI 혁신도시를 목표로 하는 서울시의 규제철폐 68호 과제에 따라, 올해부터 참여자들은 청년수당으로 해외 AI 생성형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수당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청년 스스로 성장하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다양한 직무에서 근무하는 현직자들의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풍수·지진재해 보험 선물하세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선물 첫 도입
가입 어려운 어르신 대신 가입 가능

경기도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족이나 지인들이 대신 보험에 가입해 주는 ‘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8일 도에 따르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며, 본인이 직접 인터넷이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현재는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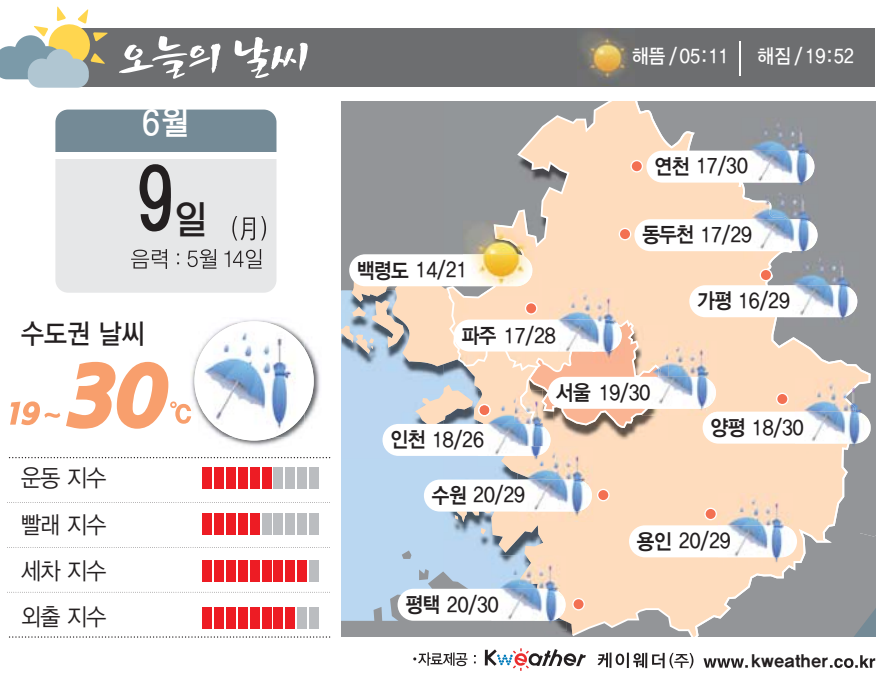
보, NH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등 7개 보험사가 이 상품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고령층 등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도민에게는 가입 자체가 큰 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가입할 수 있는 ‘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을 메리츠화재 상품에 도입했다.

도는 이와 함께 우기를 대비해 대대적인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연 1만 원으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 가입’ 등 공감형 메시지를 활용해 도민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지난해 수능도 ‘N수생’ 강세 고3보다 국어·수학 모두 앞섰다

2025학년도 수능 응시자 성적 분석
N수생, 전 영역 1·2등급 비율 높아
사립학교, 대도시 응시자 성적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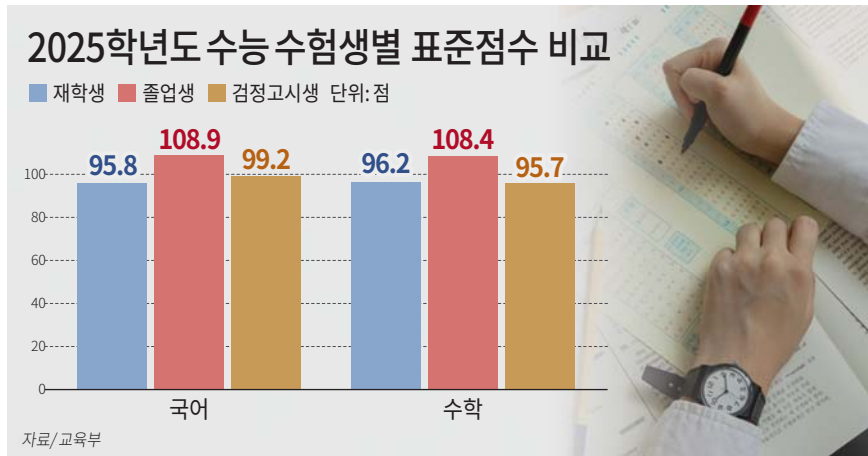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N수생(졸업생)’과 ‘사립학교’, ‘대도시’ 수험생들이 강세를 보였다.

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수능 전체 응시자의 성적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졸업생 응시자의 국어영역 표준점수 평균은 108.9점으로 재학생(95.8점)보다 13.1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영역에서도 졸업생 표준점수 평균은 108.4점으로 재학생(96.2점)보다 12점 넘는 차이를 보이며 국어·수학 모든 영역에서 졸업생 응시자의 표준점수 평균이 높았다.

특히, 1~2등급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높은 반면 8·9등급 비율은 가장 낮아, 성취도의 상하 격차에서도 졸업생이 가장 우수한 모습을 보였다.

학교 설립 주체별로는 사립학교 출신 응시자가 국공립학교를 앞섰다. 국어와 수학에서 사립학교 재학생의 표준점수 평균은 각각 98.9점, 99.1점으로, 국공립학교 응시자(국어 94.7점, 수학 95.1점)보다 높았다.

전 영역에서 1·2등급 비율 역시 사립학교 응시자가 높게 나타났고, 하위 등



급인 8·9등급 비율은 사립학교가 가장 낮아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에서 우위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 과목별 성취도 차이도 두드러졌다. 국어 영역에서는 여학생이, 수학 영역에서는 남학생이 표준점수 평균에서 앞섰다. 1·2등급 비율은 수학에서는 남학생이 높은 반면, 영어에서는 여학생 비율이 높았다. 반면 8·9등급 비율은 국어와 영어에서는 남학생이 높고, 수학에서는 여학생이 높았다.

남·여·공학 등 학교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국어에서는 여고가, 수학에서는 남고가 표준점수 평균에서 앞섰다. 1·2등급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남고가 가장 높은 가운데, 8·9등급 비율은 국어와 영어에서는 여고가 가장 낮았고, 수학에서는 남고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소재 학교 재학

생의 성적이 가장 높았다. 대도시 응시생은 국어와 수학에서 표준점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1·2등급 비율도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8·9등급 비율은 가장 낮아, 전반적으로 대도시의 학력 수준이 높게 형성돼 있음을 보여줬다.

시도별 분석에서는 서울이 가장 돋보였다. 국어와 수학에서 표준점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1·2등급 비율도 전 영역에서 서울이 가장 높았다. 8·9등급 비율은 국어에서 대구와 제주, 수학에서는 제주, 영어에서는 대구가 가장 낮았다.

시도 내 학교 간 표준점수 평균 차이를 보면 국어에서는 대전, 수학에서는 광주가 가장 적어 지역 내 학력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글로벌대학 편입 완화 등 규제특례 확대

교육부, 5개 지역 고등교육혁신 지원
전문대→일반대학 편입 규정 완화
외부 인사 허용 등 규제특례 신규 적용

교육부가 지역 대학 내 주요 보직에 대한 외부 전문가 영입을 허용하고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의 편입 규정을 완화하는 등 규제 특례를 확대했다. 글로벌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의 혁신 가속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9일부터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등 5개 지역을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으로 변경 지정하고,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의 새로운 규제특례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특화지역 제도는 지방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지역 대학들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교육·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대학의 혁신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

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앞서 교육부는 글로벌대학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을 운영했고, 총 89건 중 40건을 지난 4월에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49건 중 타당성이 인정된 사항을 추가 확정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는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등 3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전체 적용 건수는 39건(중복 제외 시 20건)에 달한다.

학사제도 측면에서는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원광대 등 통합승인을 받은 대학들이 2026학년도부터 일반학과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립목포대와 원광대는 같은 대학 내에서 전문학사에서 일반학사 과정으로 정원의 편입이 가능한 전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실습기관에 대한 지원금도 확대된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통해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습하는 경우 기존 최저임금의 25%였던 지원이 50%까지 확대돼 실전형 연구인력 양성과 대학교

실습기관 간 협력 활성화가 기대된다.

교원인사 분야에서는 울산·경남지역 국공립대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 임용이 가능해졌다.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등은 부총장과 단과대학장에 외부 인사를 영입해 외부 시각과 전문성을 대학 운영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울산대는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유연하게 확대해 급증하는 특성화 분야 강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대학경영 분야에서는 대구·경북지역의 교지·교사 임차 규제가 완화돼 한동대와 대구한의대가 지역 특화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동대는 지역과 협력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특화 집중학기’를 운영 중이며, 대구한의대는 영덕캠퍼스에 스마트팜, 기능성 소재, 식품산업 분야를, 청도캠퍼스에 치유산업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번 특화지역 변경지정을 통해 글로벌대학의 혁신 실행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LA에 주방위군 2000명 투입 …이민 단속 시위 격화 /사진 뉴시스
▲“콜롬비아 대선주자” 상원의원, 유세 현장에서 총격 부상

▲일본 은행, 국채 매입 감축 1년 연장 …속도는 완화 검토
▲트럼프, 머스크와 “끝났다”며 민주당 지원시 “중대한 결과” 보복 예고

▲러 “우크라, 전사자 포로 교환 지연” …우크라 “거짓말”
▲“부르는 게 값” 최초의 버킨백, 내달 파리 경매에 나온다



대형마트
콘텐츠·상품 강화
오프라인 경쟁력↑
L1

metro®

Life

식품업계
MZ 사로잡은
먹거리 콘텐츠
L2



“이야기 담은 달콤한 경험… 지역 고유의 품미·문화 전해요”



새벽을 여는 사람들

로다컴퍼니

신 주 영 · 이 선 화 대표

로다컴퍼니의 이선화, 신주영 공동대표는 문화 콘텐츠 기획사로 시작해 ‘팔도카라멜’이라는 디저트 브랜드를 론칭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여성 대표인 두 사람은 지역의 특산물과 문화를 디저트로 어떻게 풀어내고 있을까. 또한 기업을 운영하며 여성 대표로서 겪은 사회적인 시선 변화와 그로 인한 책임감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 지역 특산물과 문화 콘텐츠의 융합

로다컴퍼니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 국내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글로벌 관광청들과 협업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문화콘텐츠 기획사다. 신대표는 “우리는 이전 직장에서 같이 일하며 인연을 맺었고,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일상을 특별하게 바꾸고자 하는 목표 아래 창업을 결심했다”고 창업 배경을 설명했다.

눈에 띄는 점은 두 사람이 문화 콘텐츠 기획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팔도카라멜’을 론칭했다는 것이다. 두 대표는 문화 콘텐츠에서 얻은 경험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산물과 문화를 담은 디저트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로다컴퍼니가 선택한 문화 콘텐츠와 식품이라는 두 개의 분야가 어떻게 융합됐을까.

신대표는 “우리는 여러 문화 행사에서 접한 기념품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았다. 좋은 경험을 하고도 그 경험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이 부족하다는 점이 늘 아쉬웠다. 그래서 지역의 스토리와 정서를 담아낼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로 했다. 그 해답으로 ‘식품’을 선택했다. 카라멜이라는 친숙하면서도 응용이 다양한 제품을 통해 맛과 의미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팔도카라멜 론칭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단순한 소비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산물과 문화를 기반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 카라멜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다. 각 지역의 특산물을 더해 카라멜로 재해석하며, 사람들에게 지역의 품미와 문화를 동시에 전달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 팔도카라멜, ‘한국 이야기를 담다’

두 대표는 팔도카라멜의 브랜드 정체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행과 관광을 중심



신주영(왼쪽), 이선화 로다컴퍼니 대표,

/로다컴퍼니

전 직장서 인연 맺어, 문화콘텐츠 기획사 창업
여러 문화 행사 접하며 기념품에 아쉬움 느껴
지역별 특색 담긴 ‘팔도카라멜’ 디저트 론칭
상주 감, 고창 복분자 등 지역 특산물 재해석해

아시아권 관광국과 협업… 글로벌 진출 계획도
여행객들에 韓 지역 문화 전하는 브랜드 되고파

으로 다양한 문화 기획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영감을 얻었다”며 “특히 각 지역의 고유한 특산물과 문화가 지닌 매력에 주목했다. 한정적인 관광기념품의 틀을 넘어, 보다 다채롭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지역 자원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로다컴퍼니는 이러한 고민 끝에, 지역 특산물을 바탕으로 카라멜을 재해석한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를 론칭했다. ‘충북 보은 대추 카라멜’, ‘경북 상주 감 카라멜’, ‘전북 고창 복분자 카라멜’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의 맛과 품미를 살린 제품들을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 신대표는 “각 지역의 특산물을 카라멜에 담아내며,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팔도카라멜만의 독특한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들의 기획 과정은 매우 세심하다. 신대표는 “여러 지역의 행사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념품의 선택지가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점을 느꼈다. 대부분 유사한 형태의 제품에 머물러 있어 지역의 개성과 이야기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우리는 좋은 농식품을 단순히 ‘소

재’가 아닌, ‘이야기’로 풀어내고 싶었고, 그것을 가장 맛있고 즐거운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카라멜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획은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의 식재료를 직접 경험하며 시작된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레시피를 개발하고, 제품에 담은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단순한 디저트가 아닌, ‘한국의 이야기를 담은 달콤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 글로벌 진출과 향후 계획

팔도카라멜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협업을 시작했다. 신대표는 대만 관광청과 협업한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의 글로벌 진출 계획에 대해 밝혔다. 로다컴퍼니는 지난해 대만 관광청과 협업하여 부산과 대구에서 ‘대만 관광 로드쇼’를 진행했다. 이를 계기로 서울권 행사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는 일본, 홍콩, 동남아시아 등 한국에 관심이 높은 아시아권 관광 당국 등과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대표는 “K-콘텐츠와 한류 열기가 높은 지역을 타깃으로, 현지 소비자에게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안하며, 한국과 해당 국가를 잇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팔도카라멜은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 지역과 문화를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가진 브랜드다. 우리의 목표는 한국의 고유한 맛과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라며 “팔도카라멜이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꼭 찾는 디저트 브랜드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여성리더의 책임감, 사회적 시선 그리고 비전

“여성 대표로서 초기에는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에 힘든 경험을 하기도 했지만, 이를 극복하며 오히려 더 견고한 리더십을 다질 수 있었다. 여성 리더십의 강점은 ‘공감’과 ‘섬세한 소통’을 바탕으로 조직 내 신뢰와 협업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고 생각했다. 구성원 각자의 의견과 상황에 깊이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팀워크 강화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

이어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된 유연한 사고와 감성은 복잡한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이러한 여성 리더십이 저희 조직을 지속 성장토록 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향후 비전과 목표도 밝혔다. 그들은 “기획사로서 지금까지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국가와 협업 기회를 확대하고, 각국의 문화와 특성을 존중하며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가겠다”며 “팔도카라멜은 한국의 고유한 맛과 이야기를 해외에 전하는 브랜드로 키워 여행객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꼭 찾을 수 있도록 품질과 스토리텔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이선화, 신주영 로다컴퍼니 대표가 지난 4월 코엑스에서 개최한 드링크서울에 참가해 팔도카라멜을 소개하고 있다.



▲세계 2위 고프, 1위 사발렌카 꺾고 프랑스오픈 테니스 첫 우승 /사진 뉴시스
▲이정후, 대타로 출전해 삼진 …샌프란시스코 3-2 역전승

▲휴식마친 홍명보호, 오늘 파주서 재소집 …쿠웨이트전 정조준
▲장유빈, LIV 골프 버지니아 2R 공동 17위 …첫 톱10 도전

▲‘CF퀸’ 이효리, CF 복귀 선언 5개월만에 42억 벌었다
▲방탄소년단 ‘온’도 넘겼다 …16번째 스포티파이 5억 스트리밍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역시 안료 기업도 대한민국이 최고구나” 꼭 듣고 팔 겁니다

맨땅에 첫 공장을 짓던 때부터
IMF의 위기를 이겨내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지금까지
긱은 날도 많았죠

하지만 꼭 세계적인
대한민국 안료 기업이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건

가족처럼 절 믿어준
공장 직원들과 KB 덕분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더 멀리 가보려고요

국민의 꿈이 지치지 않도록
KB금융그룹이 함께하겠습니다

Korea Basic
KB금융그룹

| 우신티그먼트 대표 장성숙 | (주)우신티그먼트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국내 안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KB금융그룹